

디지털 페어런팅

Digital Parenting

VOL. 2 코로나 시대에 아이와 인터넷 잘 사용하기



Editor's 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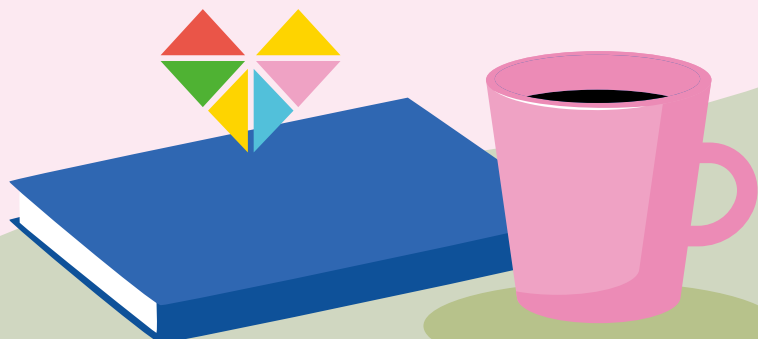
첫 번째 디지털 페어링팅 매거진을 내보낸 후 정확히 일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앞으로 찾아올 이 엄청난 변화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코로나19는 갑작스럽게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정 내에서 세웠던 인터넷 사용 규칙은 전부 무용지물이 되었고, 아이들의 유치원과 학교, 부모의 일터는 모두 노트북과 패드, 휴대폰 안에서만 존재하게 되었지요. 갑자기 이렇게 100% 실시간 원격수업에 의존하게 되는 날이 빠르게 찾아올지, 우리 중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저 역시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는 엄마로서 이 변화가 두렵고 혼란스러웠답니다.

사계절을 모두 보내고 다시 같은 계절로 돌아왔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다 해도 앞으로의 삶은 완벽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적응해야 한다고 모두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로잉맘은 두 번째 디지털 페어링팅 매거진을 기획하며, 이 변화로 인해 새로운 고민을 떠안게 된 부모들의 마음을 잘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또한 불확실함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에 압도되기보다는 부모로서 무엇을 고민하고 배워나가야 할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의 삶과 원격수업, 그리고 세어링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많은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이 질문들이, 급격히 바뀌어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과 부모 모두에게 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ROWING MOM

디지털 페어링팅은 상담/발달 전문가들이 온라인으로 육아 분석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로잉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로잉맘은 아동의 정서 및 발달을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 시대의 건강한 미디어 사용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페어링팅 1호 발간, 영상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거진 한눈에 보기!



포스트 코로나



- 포스트 코로나란?
- [설문조사] 육아 현실과 부모의 고민은?
- [인터뷰] 전문가가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터넷 사용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인터넷 사용 규칙 알아보기

- [설문조사] 원격수업의 현실과 부모의 고민은?
- [인터뷰] 전문가가 말하는
원격수업과 인터넷 사용
- 효과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부모의 역할 알아보기

원격수업



세어런팅



- [인터뷰] 아이의 사진과 정보 공유,
괜찮을까요?
- [설문조사] 세어런팅에 대한 부모의
솔직한 고민 살펴보기
- 부모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세어런팅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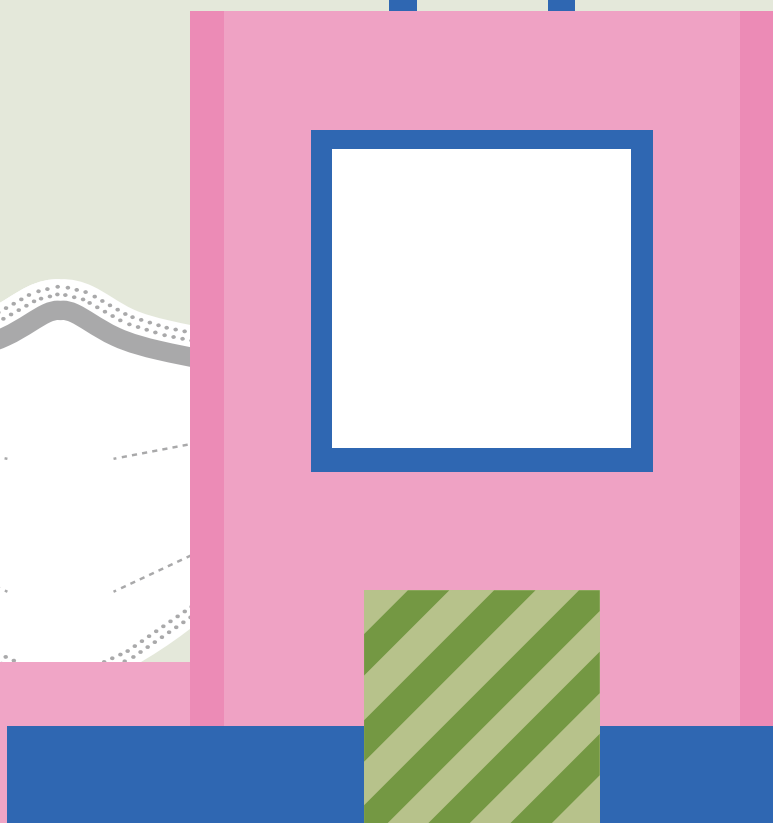
Contents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는 무엇인가요?	6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엇이 달라졌나요?	7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모들에게 물었다.	8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전문가 SAY	1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터넷 사용 규칙	12
원격수업	원격수업, 어떤 형태로 진행되나요?	16
	원격수업,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17
	부모 인터뷰 원격수업의 현실	18
	효과적인 원격수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20
	원격수업 해외에서는 이렇게 수업하고 있어요	21
	원격수업에 대한 전문가 SAY	22
	원격수업을 위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4
세어런팅	세어런팅에 대한 물음, 아이의 사진과 정보 공유, 괜찮을까요?	28
	부모 인터뷰 아이 정보, 어디까지 공유해야 할까?	30
	부모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세어런팅 TIP	32
	세어런팅에 대한 자녀의 목소리 우리의 사생활도 지켜주세요!	33
부록	자녀와 부모님이 함께 볼 수 있는 자료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34
	인터넷 사용 컬러 일과표 - 초등학생용	35
	인터넷 사용 컬러 일과표 - 유아용	36



포스트 코로나 POST CORONA

DRIVE-THRU



포스트 코로나는 무엇인가요?

“대안들 중 하나를 결정할 때,
우리는 ‘당면한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뿐만 아니라
‘일단 폭풍이 지나가면 어떤 세계에 살 것인가’를 자문해 봐야 한다.
그렇다. 폭풍은 지나갈 것이고, 인류는 살아남을 것이며,
우리들 대부분은 여전히 살아있으리라.
하지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 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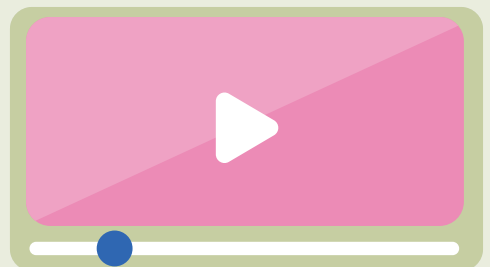
유발 하라리(Y.N.Harari),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혹은 종식에는 실패해도 안정화가 되었을 때, 경제 및 생활에 다가올 변화 및 시기를 말해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가 생겼어요. 위생을 신경 쓰게 되었고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었죠. 외출을 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줄어들며 집콕 생활이 길어졌어요. 재택근무가 자연스러워졌고,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원격으로 수업을 하기 시작했죠. 특히 부모님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아이들과 붙어있어야 하는 '집콕 육아'의 시기가 길어지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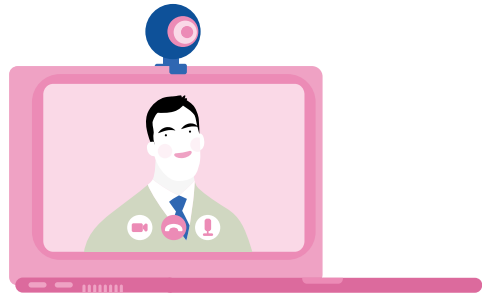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겪은 코로나19의 시간들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이야기해요. 실제로 사회/교육 분야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된 디지털 환경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고, 이런 경험들이 더 빠른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죠.

폭풍은 언젠가 지나갈 것이예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19라는 폭풍은 생각보다 많은 여파를 남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폭풍이 지나간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세상의 새로운 규칙이 지금 생겨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엇이 달라졌나요?

교육: 원격수업 실시



일상: 비대면 서비스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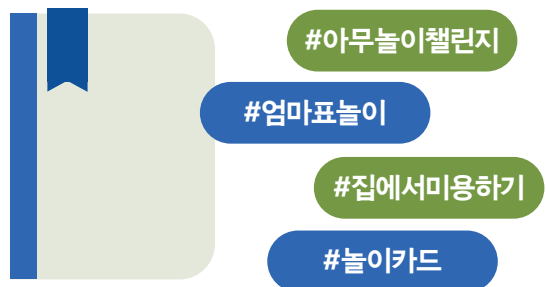
언택트 시대 돌입. 비대면 서비스 증가
인터넷을 통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홈딜리버리 #택배물량증가 #테이크아웃
#무인가게 #드라이브스루 #SNS_인기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사상 초유의 원격수업 실시!
2020년 4월 9일, 고3과 중3을 시작으로
초중고교생 540만 명이 원격수업 시대에 돌입

#원격수업 #초중고교생 #유치원생까지
#공교육의_온라인화

육아: 가정보육



코로나 가정보육
원격수업과 보육기관의 휴원령으로 인해
가정 보육의 연속!

#집콕육아 #아무놀이_챌린지
#놀이키트 #집에서00놀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모들에게 물었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우리의 삶은 매우 달라졌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많이 변화한 상황에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민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응답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코로나19 이후, 자녀 돌봄에 있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복수응답)

자녀의 인터넷(TV, 스마트폰 등 포함) 사용 시간이 늘어난 것

273명 (45.1%)

자녀와 놀이를 하는 것

213명 (35.2%)

부모가 개인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201명 (33.2%)

부모의 일과 자녀 돌봄을 병행하는 것

180명 (29.8%)

매끼 식사를 챙기는 것

177명 (29.3%)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는 것

115명 (19.0%)

코로나19 이후 무엇보다
자녀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제일 걱정돼요.

2.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부모님의 고민은 어떤 것입니까? (복수응답)

늘어난 TV 시청 시간

304명 (50.2%)

늘어난 인터넷 사용 시간(스마트폰, 태블릿 포함)

255명 (42.1%)

원격수업 등 새로운 미디어 사용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69명 (11.4%)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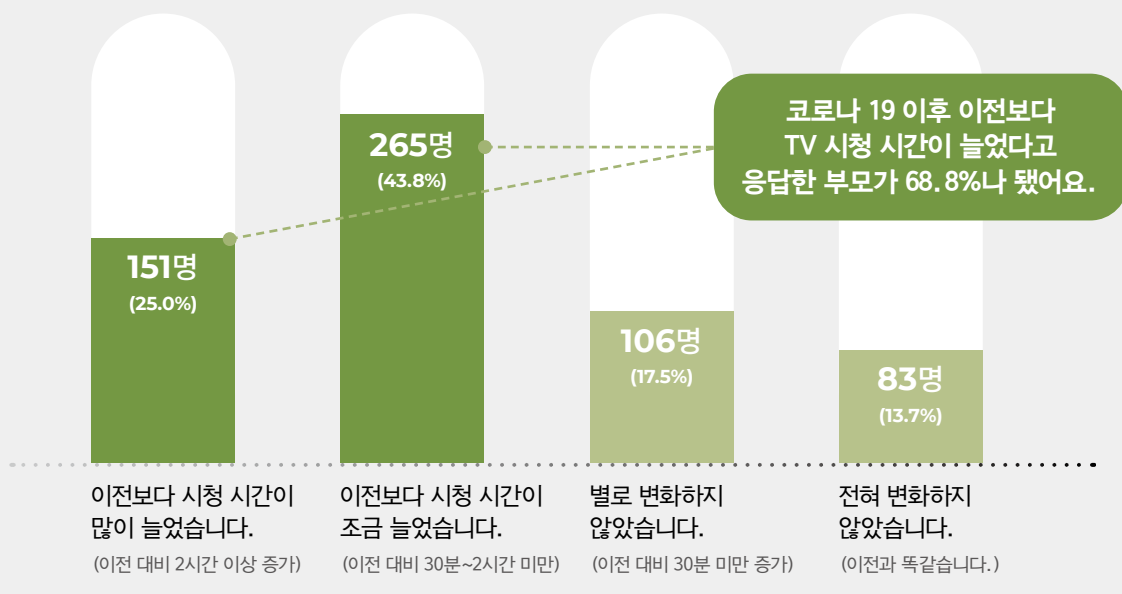
69명 (11.4%)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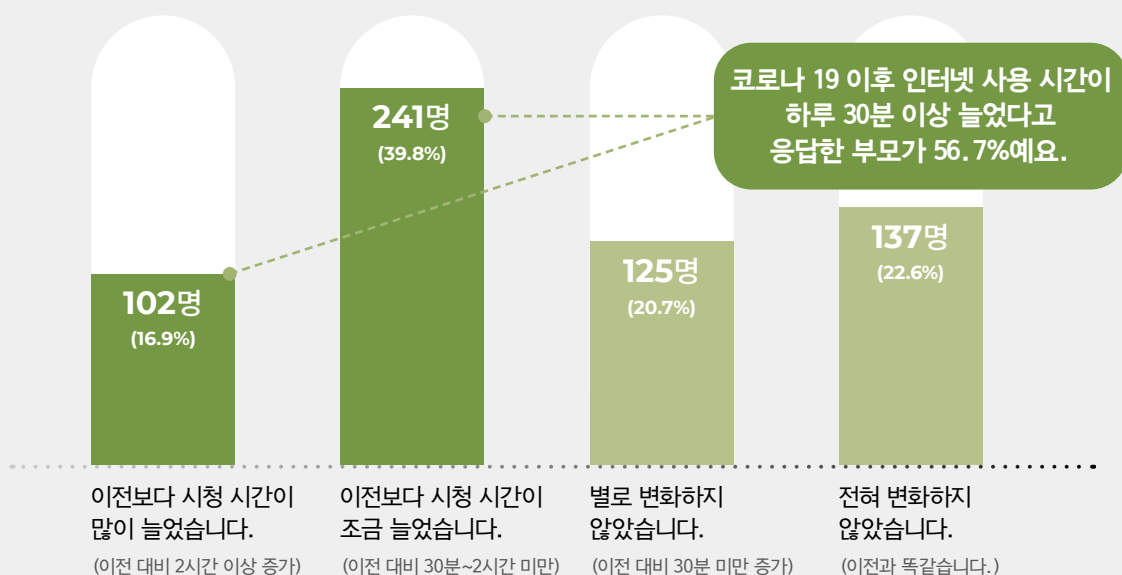
31명 (5.1%)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사용 시간 중,
TV 사용 시간 증가한 것이
가장 고민스러워요!

3. 코로나19 이후, 아이의 TV 시청 시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4. 코로나19 이후, 아이의 인터넷 사용 시간(스마트폰, 태블릿, PC 포함)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출처: 그로잉맘이 실시한 설문조사

- 기간: 2020년 11월 13일 ~ 2020년 11월 26일

- 대상: 3세~10세 자녀를 둔 부모 605명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전문가 SAY



김광재 교수

김광재 교수는 한양사이버대학교 광고 영상창작학과 교수로 정부 미디어 정책 자문 및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최근 저서로는 '미디어 교육 선언(2019)',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공저, 2018)' 등이 있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한 아이의 인터넷 사용, 팬참은 걸까요?

코로나19로 인터넷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더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인터넷은 생각보다 긴 시간 속에서 인류 사회의 발전과 함께하고 있어요. 인터넷은 60년대 군사적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80년대에 민간으로 확대되며 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대중화가 되었어요. 인터넷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쳐 왔으며, 인터넷이 발전시킬 미래에 대한 기대도 많이 갖게 되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인터넷이 우리에게 미칠 악영향을 두려워하며 불신하고 있어요.

특히 현시대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현 부모 세대들의 어린 시절은 인터넷과 휴대폰이 없는 아날로그 시대였고, 인터넷 등 디지털 문명은 성인에 도달한 나이에 접하였기에 현재 육아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인터넷 노출이 익숙하지 않고, 불안만 커질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잘 '통제' 하고 최대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 이후 외부 활동이 과거보다 급격하게 줄어든 현재 육아 생활로 더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의 인터넷 사용 시간은 급격히 증가했고,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전에 아이와 세웠던 인터넷 사용 규칙은 집콕육아와 원격수업 등 '비대면'이라는 단어로 인터넷 활용이 더욱 증가한 현시점에서 무너지기 너무 쉽지요.

—— 코로나19로 빠르게 바뀌는 세상, 부모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사용이 갑자기 증가한 것은 아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 사회는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다만 아직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인터넷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부모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인터넷의 이용을 통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온-오프라인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학습하고 놀이하는 새로운 육아 방식을 경험하고 배워 나가야 해요. 이 시대의 부모의 역할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며, 그렇기에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접근으로 육아와 교육을 실천해야 합니다.

—— 인터넷을 통한 학습은 괜찮은가요?

부모인 우리가 인지하는 ‘학습’의 형태는 매우 아날로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인터넷 강의나 디지털 기기를 통해 무언가를 배울 때보다, 책을 읽고 연필로 쓰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더 안도하지요. 요즘처럼 아이가 원격수업을 하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습 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 때문이지만 인터넷 사용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닐까?’, ‘디지털 기기 또는 인터넷을 통한 학습이 정말 괜찮을까?’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지요. 물론 원격수업이 도입되는 시기이기에 학습자의 준비와 학습을 위한 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 아직은 불안정한 교육 상태일 수는 있습니다. 또한 원격수업에 의한 학습 환경의 차이로 인해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를 통한 학습이 그 자체로서 일반적인 학습에 비해 학습효과가 떨어진다는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학습을 위한 기술은 학습자의 안구 운동을 측정해 집중도를 측정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학습을 돕기 위한 다양한 기술도 개발되고 있어요. 오히려 인터넷 사용과 디지털 기기들을 통한 학습은 부모

세대가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익숙하고 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일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아이의 학습을 위해, 무엇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학습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학습으로 인해 부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을 어떻게 채워줘야 할지 고민하고, 도와주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적응하고 극복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미디어의 효과에 대한 이론으로 일반인의 인식과 관련된 ‘제3자 효과 이론’이 있습니다. 개인이 미디어가 주는 영향력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보면서,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3자 효과 이론은 인터넷이라는 미디어 사용을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들은 우리보다 약하고 분별력이 없기에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이라 걱정하면서 정작 부모 자신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인터넷 사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인의 과도한 사용에 대해서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아이에게 과도한 통제 지시만 내리게 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자녀와 관련하여 자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분별한 자녀에 대한 인터넷 기록으로 세어런팅의 폐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 5G, GiGa 인터넷, IOT 등의 기술 발전 덕분에 우리의 삶은 인터넷과 함께 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러한 일상이 당연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낯설음에 두려워하며 통제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시선에서 새로운 환경을 함께 고민하고, 적응하며, 배워가는 태도가 필요한 시기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터넷 사용 규칙

1. 아이와 함께 인터넷 사용 규칙 만들기

코로나19 이후, 가정교육과 원격수업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일상생활이 많이 변화했으니 인터넷 사용 규칙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화와 약속이 필요합니다.

1) 인터넷 사용 컬러 일과표 만들기

인터넷을 이용한 미디어 사용 시간이 많아진 아이들! 아이의 하루 일과 중 인터넷을 사용한 온라인 학습, 온라인 놀이(게임), 오프라인 학습, 오프라인 놀이, 그 외의 일상 생활이나 여가활동 등을 구분하여 하루일과를 계획해 보세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보다 균형 잡히고 건강한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어요.

* 35~36쪽에 인터넷 사용 컬러 일과표 활동지가 있으니 아이와 함께 활용해 보세요.



2) 부모와 함께하는 인터넷 사용 시간 갖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부모가 아이의 인터넷 생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이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무엇을 하는지 혹은 아이의 취향이 어떠한지 파악하기 어려워져요. 때때로 부모가 아이와 함께 영상을 보거나 게임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3) 인터넷 사용 식단표 만들기

건강한 식사를 위해 식단표를 만들듯이 건강한 인터넷 생활을 위해 우리의 인터넷 사용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모는 아이에게 앱이나 사이트 등을 추천하면서 어떠한 점에서 유용한지 설명해 주세요. 또한 아이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인터넷 생활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어요.



2.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잘’ 활용하기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가시간을 보내보세요. 특히 비대면 상황이 주는 또래관계의 어려움이나, 함께하는 놀이의 한계를 인터넷 사용으로 극복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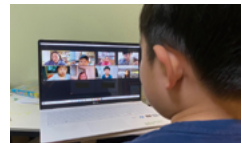
1) 온라인 만남 & 놀이 (Zoom을 활용하여 또래와 함께 활동하기)

- 마피아 게임, 끝말잇기 게임, 온라인 독서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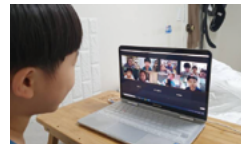
2)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놀이하기

- 오디오 클립 활용하기, 오디오 그림책 듣고 상상해서 그려보기



3) 인터넷을 활용하여 취미생활하기

- 홈트레이닝 하기, 요리 활동하기, 과학 실험하기
- 추천 유튜브 채널: 서울상상나라([youtube.com/c/seoulsangsangnara](https://www.youtube.com/c/seoulsangsangna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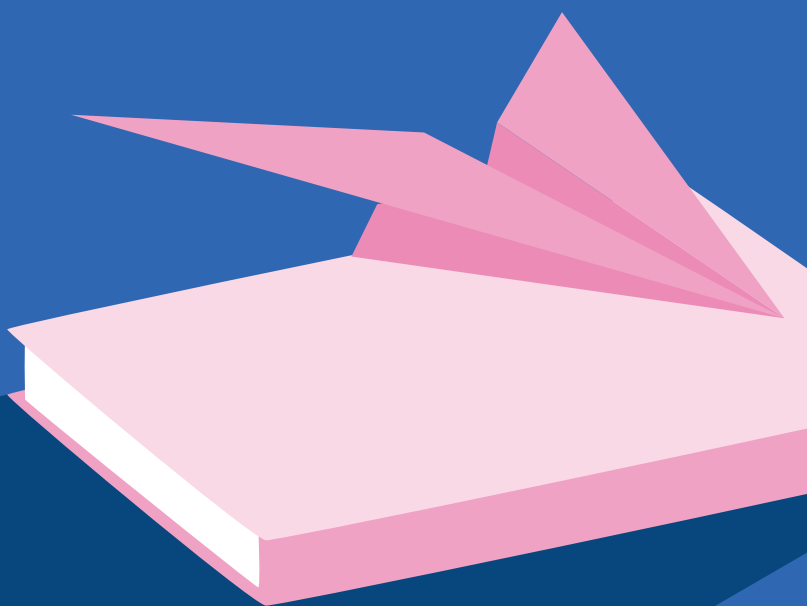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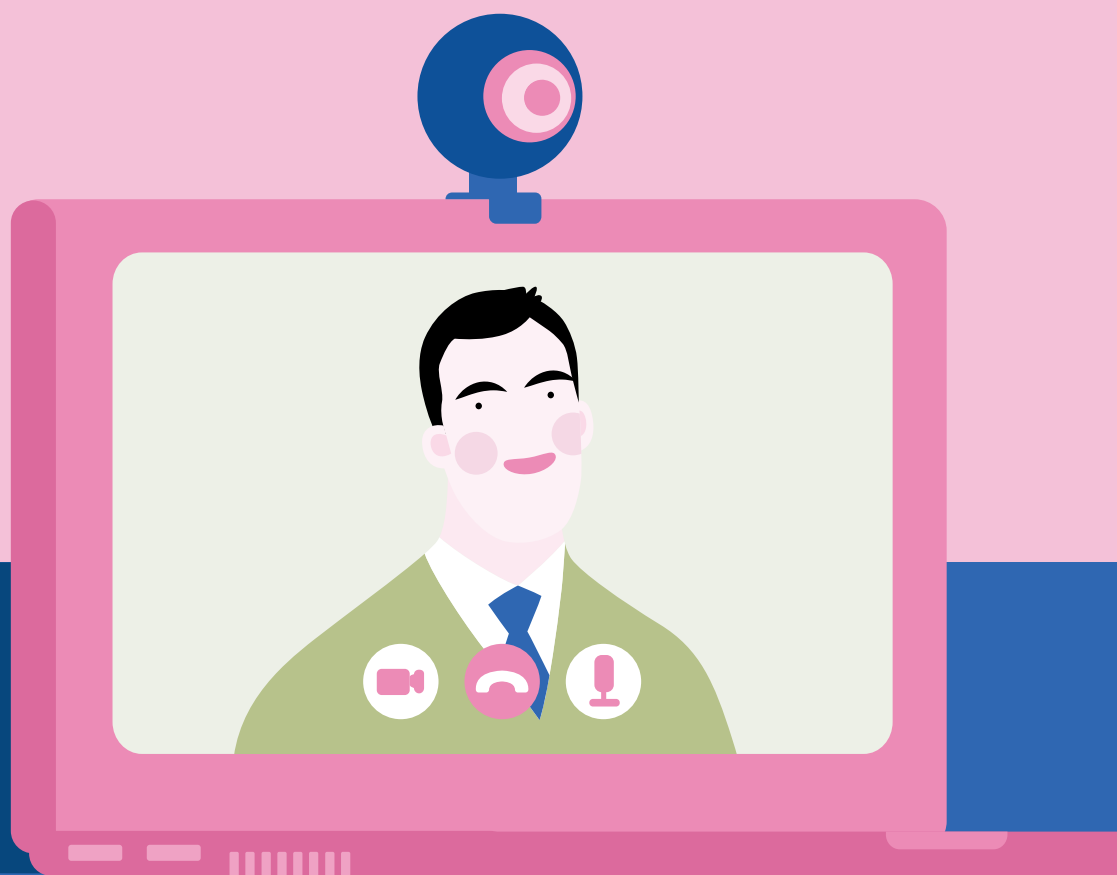


3. 인터넷 사용 OFF Time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인터넷 ON - OFF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구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극으로 피로해진 눈을 쉬게 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이나 놀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벼운 몸놀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찾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 추천 놀이: 그로잉맘 아무놀이 챌린지 놀이 가이드북
(그로잉맘 네이버 블로그에서 '아무놀이 가이드북'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





원격수업

REMOTE 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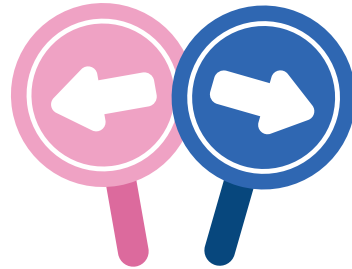
원격수업, 어떤 형태로 진행되나요?

1. 실시간 쌍방 수업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 수업

예시

네이버 라인 워크, 구루미, 구글 행아웃, MS팀즈, ZOOM, 시스코 Webex 등 활용



2.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① 강의형:

학생은 지정된 강의 VOD 혹은 학습 콘텐츠를 시청하고
교사는 학습 내용 확인 및 피드백

② 강의형+활동형:

학습 콘텐츠 시청 후, 댓글 및 원격 토론하는 방식

예시

EBS 강좌, 유튜브, 교사 자체 제작 자료 등



3.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내용을 맥락적으로 확인 가능한 **과제 제시 및 피드백**

예시

교사의 과제 제시 → 학생은 독서 감상문, 학습지, 학습자료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학습 결과 제출 → 교사 확인 및 피드백



원격수업,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1. 원격수업 출결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출처: 교육부)

출결관리는 실시간 확인과 사후 확인으로 나뉘어집니다.

실시간 확인

학습관리 시스템(LMS), 문자메시지, 유선 통화

사후 확인

학습 결과 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 학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

2. 원격수업 기간 동안 학생생활기록부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출처: 교육부)

선생님은 등교 시 학생이 원격수업 기간에 작성한 수행 과제물 등을 활용하여 수업하고, 학생의 활동을 직접 관찰하거나 확인한 경우 이를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 등은 평가하지 않으며, 등교수업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TIP! 스마트 기기 무상 지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출처: 교육부)

가정 내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교육급여 수급권자, 중위 소득 50% 이하)의 경우,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이나 복지포털 사이트를 통해 '교육정보화 교육비'를 신청하면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월 19,250원, 유해 매체 차단 포함)를 지원하며, 스마트 기기가 없는 학생에게는 학교와 각 교육청이 보유 중인 스마트 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스마트 기기 대여 제도'를 실시합니다.

- 데스크탑 PC·노트북 PC·스마트패드·스마트폰 중 1개

- 위 내용은 2021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부모 인터뷰

원격수업의 현실

- 본 내용은 자녀의 원격수업 경험이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0년 12월 4일에 진행한 그룹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이의 연령에 따라 고민이 달라져요

↳ **sayj님** 그동안 인터넷 규칙을 제법 잘 지켜왔는데,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부모로서 많은 혼란이 왔어요.
미취학 아동 (유치원)

↳ **이름님** 학교라는 곳도 가보지도 못한 채 원격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인지 처음 EBS로 수업할 때, 아이가 담임 선생님을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초등 입학생 (초1)

↳ **으내맘님** EBS, 하이클래스 위주로 진행하다가 유튜브나 다른 온라인 학습도 추가되었어요. 줌으로는 조회 정도 참여했고요. 엄마는 아이의 원격수업 시간 동안 다른 것을 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아이를 신경 써야 하니 여러모로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초등 저학년 (초2)

↳ **파랑별님** 처음에는 영상 위주의 수업이었는데 나중에는 줌 수업으로 변경되었어요. 이러한 과정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렸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인지라 줌 수업에 대한 적응도 필요했어요. 초등 고학년 (초4)



원격수업을 받는 환경 조성이 어려워요

동생이 아이의 원격수업을 방해해요.

코로나로 인해 아빠가 재택근무를 하고, 둘째도 있다 보니 아이의 학습 공간이 부족하고, 아이가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워했어요!

부모가 맞벌이라서 원격수업 중 접속이 끊기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에게 빠르게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EBS 수업이 끝나도 그 채널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하니까 아이가 TV를 계속 보고 싶어해요. 그러다 보면 원격 수업이 끝나도 TV를 계속 시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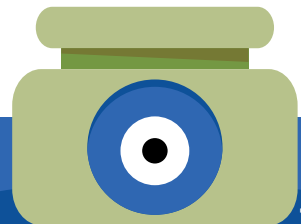
학습에 대한 고민이 늘었어요

원격수업이 지속될수록 학습 격차가 염려돼요.

좀 수업이 30분을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아이가 매우 힘들어해요.

미술 수업을 집에서 하니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서 엄마 과제가 되더라고요.

유치원에서 활동 과제를 내주었는데, 미취학이라 그런지 과제 확인이나 원아 관리가 미흡하여 잘 안하게 되었어요.



효과적인 원격수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 ✓ **학습 환경 개선:** 가정과 학교가 쌍방 소통할 수 있는 수업 콘텐츠 확대
- ✓ **매뉴얼 필요:** 가정에서 아이의 원격수업을 도와주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 ✓ **다양성 고려:** 다양한 환경에서 원격수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 구성하기
- ✓ **인터넷 이용 교육:** 인터넷 과의존 및 학습저하 예방



부모 SAY

↳ 과제의 양이나 수준의 적정선이 필요해요.

이름님 저학년은 과제에 대한 실물 예시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또한, 과제가 너무 많을 때도 있고, 과제가 유치원 수준으로 너무 쉬울 때가 있어서 과제 양이나 수준의 적정선이 있었으면 해요.

↳ 과제 진행 방식이 쉬웠으면 좋겠어요.

파랑별님 타이핑이 서툰 학생들을 위해 과제의 방식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긴 글은 타이핑하는 것 대신 손으로 직접 써서 사진을 찍어 제출했으면 해요. 지금은 아이들이 원격수업에 익숙해지는 시기인 만큼 조금 더 세심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동영상 이외의 다른 콘텐츠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파랑별님 유튜브 동영상 이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이용하는 경우 연관 영상으로 인해 유해 콘텐츠 노출이 심해지는 부분이 걱정이에요.

↳ 저학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요.

으니맘님 저학년은 맞벌이 부모가 케어하기에 힘든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은 다양한 방법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습도우미 지원 같은 거요.

원격수업

해외에서는 이렇게 수업하고 있어요

핀란드

핀란드에서도 원격수업 실시 첫날부터 피르칸마지역에서 WILMA 시스템이 셧다운 되는 등 혼란이 있었어요. 현재는 [윌마와 헬미]라는 학습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원격수업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어 있어요.



영국



영국의 경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립학교가 많아서 그 양상이 학교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영국 교육부가 BBC 방송사와 연계해 원격수업을 보강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원격수업에 대한 전문가 SAY

정현선 교수

정현선 교수는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이자미디어리터러시연구소 소장입니다. 저서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육아 (2017)'를 통해 인터넷을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를 아이들이 어떻게 접하도록 해야 할지에 대해 현실적이면서도 열린 시각으로 다양한 조언을 담아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수업의 모든 것>, <Z세대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의 책을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썼고, <디지털 네이티브, 그들은 어떻게 배우는가>를 번역했습니다.



— 원격수업을 하는 요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유엔(UN)의 아동 권리 협약을 살펴보면, '아이들은 충분한 휴식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듯 휴식 시간은 매우 중요해요. 학교에서도 수업이 끝나고 나면 휴식 시간을 반드시 주는 것이 그 때문이죠. 특히 원격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 시간과 휴식의 경계가 불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격수업의 쉬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하지 않기 등 인터넷 사용을 잠시

쉬는 형태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의 심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또한 원격수업은 시각 자극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 가만히 앉아서만 수업을 해야 하지요. 평소보다 더 힘든 학습환경에서 수업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아이에게 무엇이 힘든지 물어봐 주세요. 아이는 눈이 아플 수 있고, 몸이 힘들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격수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고 건강을 챙기는 것도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부모님들 입장에서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량이 충분하지 않아 오히려 학습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더 늘려야 하는가 고민이 많아요.

부모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다른 측면을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아이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학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도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소화되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 보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수업이 끝난 후에 함께 복습하거나, 선생님 놀이를 하며 오늘 배운 내용을 부모에게 다시 설명하는 형태의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아이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아서 아이의 학습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인터넷 사용 시간에 원격수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학원을 통해서 추가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된다면 인터넷 사용 시간의 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하는 다른 활동에서의 인터넷 사용을 관리하고 인터넷 사용 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원격수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가 원격수업을 통한 결과물을 재생산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어요. 원격수업이 끝난 이후에 수업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을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하고 찾아보는 활동을 해볼 수도 있지요. 연관이 되는 책을 찾아보거나 그림 그리기, 만들기 등의 활동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어요.

특히 인터넷상에서 창작자가 되어보는 경험으로 확장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인터넷 사용 시간이 많지 않은 날을 골라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본다거나 오디오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그 방법이지요. 부모와 함께 책을 읽고 함께 팟캐스트를 올리는 독후 활동을 해보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 사용을

무조건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보다는 바르게 이용하고, 창작자로서의 경험을 올바르게 해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미디어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 역시 원격으로 전환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로서 어떠한 시각의 변화를 해야 하는지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미디어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 집 아이만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미디어가 멈추면 아이의 학습도 멈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인터넷 사용이 늘어난 것을 힘들어하기보다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오프라인 전략을 많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사지하며 아이와 스킨십하는 시간을 가져보거나, 몸을 함께 움직이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그 예일 수 있죠. 저는 눈에 안대를 해 주고 쉬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더불어 저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인터넷 이용에 대한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데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도 아이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인터넷 이용에 대한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미디어 교육을 해 달라고 요구한다거나 그것을 만드는 데 부모가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한 가족 간의 원칙과 규칙을 다시 세우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격수업을 위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이는 학습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와 주도성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원격수업에서도 다르지 않아요. 원격수업에 필요한 규칙을 배우며, 수업을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은 수업의 형태와 관계없이 아이의 학습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하여 아이에게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주세요!

1. 아이 스스로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연습하게 해주세요.

집에서 하는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전부 챙겨주고 도와준다면, 아이는 스스로 수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연습을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하더라도 아이가 해낼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아이와 원격수업 시간표를 함께 만들고, 수업이 있는 날에는 오늘 해야 할 수업과 시간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세요. 유아의 경우, 부모님이 함께 시간표를 읽어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등교할 때 교과서와 준비물을 챙기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아이가 스스로 수업에 필요한 책, 준비물 등을 챙기도록 해주세요. 유아의 경우, 부모님이 도와주되 아이를 꼭 참여시켜주세요.



원격수업에 참여하기 위한 접속 방법,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스스로 접속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의 연령에 따라 가능한 부분까지만 해보도록 해주세요.



2. 아이마다 원격수업에 적응하는 속도와 참여하는 모습이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원격수업은 대면으로 받는 수업과 많이 달라요. 성인에게도 어려운 부분이 많고 적응이 필요한 영역이지요. 따라서 아이마다 원격수업에 적응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속도와 원격수업 상황 내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아이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너무 재촉하게 되면 아이가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해요.

3. 원격수업은 새로운 형태의 수업이기에, 원격수업에 필요한 규칙을 배우도록 도와주세요.



원격수업 시 음소거 버튼을 사용하는 연습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는 음소거를 하고, 발표를 하거나 대답을 해야 할 때는 음소거를 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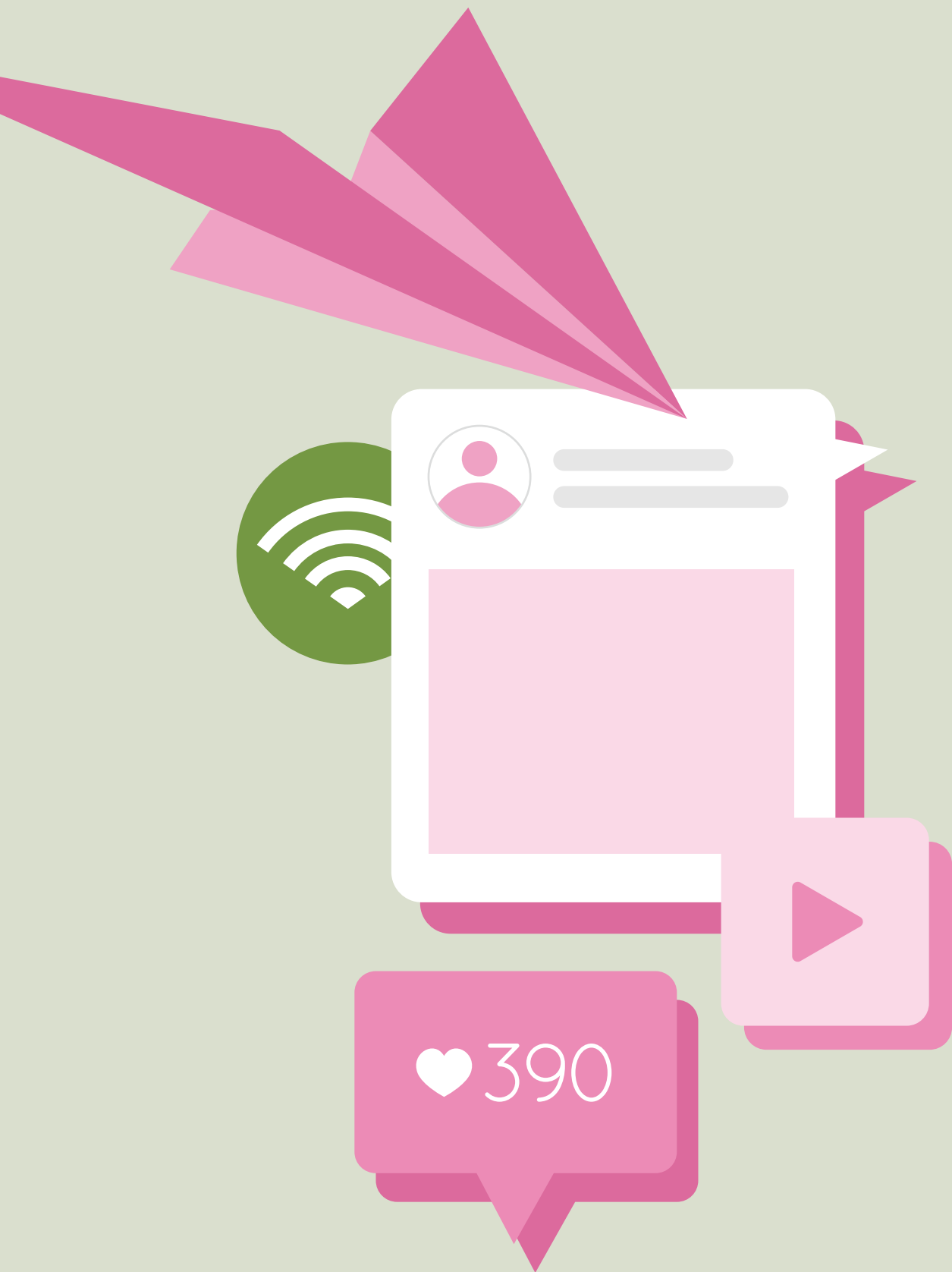
음소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거나, 수업하고 있는 자리에서 함부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네모난 화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명확한 규칙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을 하는 중에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모습을 함부로 캡처/사진 찍지 않아야 하며, 수업의 내용을 몰래 녹화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알려주세요.

아이의 학습동기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상호작용 tip이 있을까요?

원격수업 후, 아이가 배운 내용에 대해 마치 선생님이 된 것처럼 설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가볍게 “오늘 배운 ○○이 어떤 거야? 엄마(아빠)는 잘 모르는데 알려줄 수 있어?”라고 질문해보아도 좋고, 마치 학교놀이를 하듯이 종이를 벽에 붙여주거나 화이트보드를 준비해 주는 것도 좋아요. 아이는 자신의 언어로 다시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정확하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셰어링 SHARENTING



셰어런팅에 대한 물음, 아이의 사진과 정보 공유, 괜찮을까요?



곽혜숙 수석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아, 너 ○○동 ○○ 유치원에 다니는 ○○이 친구 아니니? 나는 ○○(부모이름)의 친구야. 너희 집 ○○○○이지? 부모님이 너랑 같이 집에 가 있으라고 했어.”

부모의 이름뿐 아니라,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이 대화는 꼭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해도, 마음만 먹으며 단 몇 번의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누구나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보이지요. ‘너무 과장 한 것은 아닐까?’라고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온라인 생활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녀의 일상 등 육아를 SNS로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셰어런팅(공유를 뜻하는 ‘share’와 육아를 뜻하는

‘parenting’을 합친 신조어)이라고 합니다. 대표적 SNS 인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만 살펴봐도 2020년 12월 30일 기준 ‘육아스타그램 3,426만, 맘스타그램 2,096만, 딸스타그램 2,391만, 아들스타그램 2,055만 건’의 글이 게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의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기록하기 위한 게시글에 자녀의 이름, 위치정보, 나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에요. 미국의 많은 아이들은 태어난 날부터 소셜미디어에 게시되며, 92%가 2세 이전에 등장하고, 5세 이전까지 부모에 의해 평균 1,000개의 이미지가 게시된다고 합니다. 또한 유니세프 노르웨이 조사에 의하면 노르웨이 부모 4명

중 3명은 자녀의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있으며, 자녀가 12살이 되기 전에 평균적으로 1,165개의 사진이 게시되고 있다고 해요. 2018년 런던정경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도 최근 한 달간 인터넷을 사용한 영국 부모의 75%는 자녀의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한다고 응답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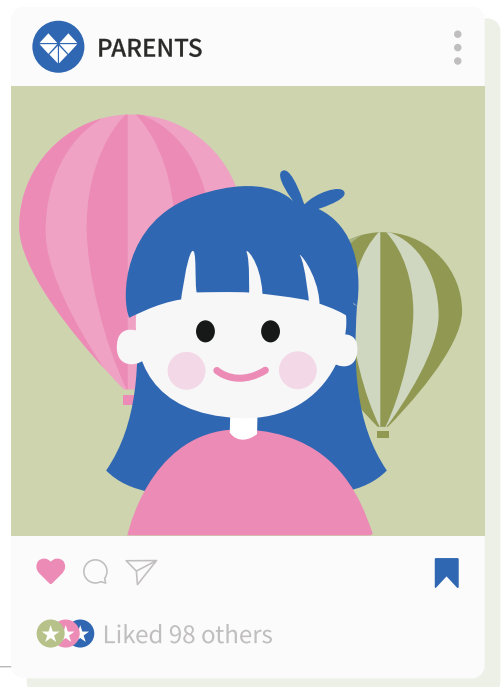
부모는 왜 아이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일까요? 인터넷상에 일상이 공유되는 아이는 흔히 말하는 랜선 이모, 삼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이가 웅얼이하고, 이유식을 먹고, 유치원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에 대해 응원을 받지요. 그리고 부모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많은 정서적 지지를 얻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주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효과가 육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는 나의 글과 사진에 우호적인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어떤 아이의 사진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쓰인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유도 스팸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부모가 직접 불법 메시지에 자신의 자녀 사진을 넣었을 리는 없고, 누군가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이 사진을 캡처한 후 공유했을 가능성이 크지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 아이의 사진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성적 대상화 혹은 합성, 불법 호객행위에 동원된다고 생각하면 섬뜩하지 않나요?

따라서 온라인상의 정보는 누구나 저장할 수 있고, 변형 가능하며, 게시한 글들은 영원히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해요. 나중에 청소년이 된 자녀가 본인의 사진과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부모에게 요청했을 때, 부모의 SNS에서는 지워질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게시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곳에서 공유되고 있을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은 부모와 아이의 삶 모두에 깊숙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디지털 공간에서의 평판은 더욱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하지요. 따라서 지금이 바로, 자녀의 일상과 정보를 ‘어떻게, 얼마나, 누구와’ 공유할지를 결정하고 논의해야 할 중요한 시점인 것은 아닐까요?



부모 인터뷰

아이 정보, 어디까지 공유해야 할까?

- 본 내용은 1~7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2020년 12월 4일에 진행한 그룹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이의 일상, 어디까지 공유하나요?

공유 수단에 대해

↳ **하늘봄님** 카카오톡에만 올리고 있어요. 휴대폰 번호를 공유한 사람에게만 노출되니까요.

↳ **봄봄맘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을 주로 써요. 이전에는 블로그만 사용했는데 생각보다 노출이 잘 되는 편이라 인스타그램으로 바꿨어요.

공개 범위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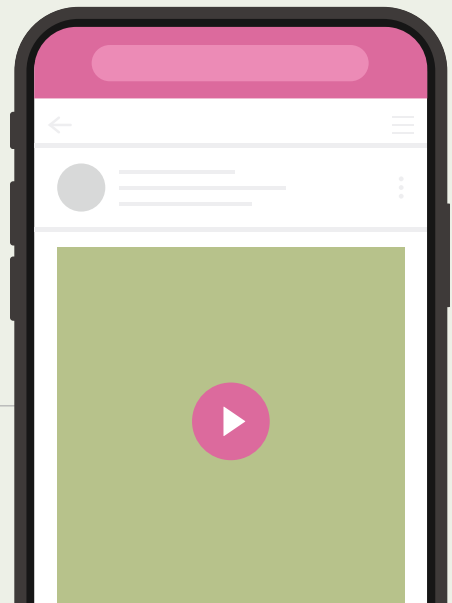
↳ **하늘맘님** 인스타그램이 비공개이긴 하지만, 아이 생일이 언제인지, 몇 살인지, 얼굴 등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올려요.

↳ **맑음님** 한 달 전까지는 공개였는데, 남편의 권유로 비공개로 전환했어요. 대체적으로 아이의 일상을 SNS에 기록하는 편이에요.

아이의 일상을 공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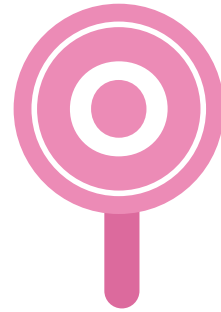
↳ **하늘맘님**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목적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현재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원하는 사람한테만 공유하는 것이 좋아요.

↳ **sayi님** SNS는 안 하고 카카오톡에만 올리는데 사실 올리는 이유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아이의 일상을 SNS에 공유하면서 느낀 점



부모 SAY - 부정적 측면

↳ **맑음님** 위치 공개를 해두면 뜻밖의 사람들이 우리의 일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는 사람일지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sayj님** 내가 업로드하지 않아도 가족과 지인을 통해 나의 정보를 쉽게 찾고, 내 아이의 정보까지 알게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SNS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 SAY - 긍정적 측면

↳ **하늘봄님** 아이와 부모인 나에 대한 기록이 되는 것 같아요. 기록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 자존감도 올라가고요.

↳ **맑음님** 소통이요. 멀리 있는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 **봄봄맘님** 요즘 같은 시기에는 친구를 자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SNS는 공유하기에 매우 좋은 수단이에요.

세어런팅,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 **클로버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이에 대한 피드를 자기만 볼 수 있게 수정하고 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나이가 되었을 때, 자신의 아기 때 사진이 인터넷에 올려져 있으면 싫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기준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 **sayj님** SNS에 업로드하기 전,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기록인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인지, 또는 마케팅의 목적인지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올리고 싶은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셰어런팅 TIP

1. 자녀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 및 행복을 고려한 선택을 하세요!
2. 내가 올린 자료는 ‘누구나(안전하지 않은 타인도 포함)’ 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3. 자녀에 대한 내용을 업로드할 때는 공유 범위를 제한하세요.
(전체 공개 보다 비공개 혹은 일부 공개)
4. 나체(목욕), 배변 등 자녀가 향후 부끄러워하거나 불법 사이트에 도용될 수 있는 사진, 다른 자녀와 함께 나온 사진 및 개인 정보(주소, 이름, 동선, 위치 등), 자녀의 약점 및 별명 등을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5. 자녀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은 게시물만 게시하는 것이 좋아요.
더불어 자녀에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현재 셰어런팅을 규제하는 나라가 있나요?

프랑스

본인의 동의 없이 누군가의 사진을 배포하거나 SNS에 올리면 약 5,700만 원의 벌금과 1년 징역형에 처해지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유아 시절 사진을 올리는 것에도 적용이 된다고 해요.

베트남

현재 부모가 자녀의 개인 정보를 본인 허락 없이 SNS에 올리면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셰어린팅에 대한 자녀의 목소리

우리의 사생활도 지켜주세요!



2016년 캐나다 출신의 대런 랜들(당시 13세)은 부모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자신의 동의 없이 SNS에 자신의 사진을 게시했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A 어린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 사진이 부모님의 SNS에 올라와 당황한 적이 있어요.



B 어린이

여자 친구와 찍은 사진을 부모님이 공유하는 바람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 출처: 어린이조선일보

FAQ. 아이가 사진 찍기를 거부해요



평소에 사진을 잘 찍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사진 찍지 마!”라고 격렬하게 거부해요. 혹시 제가 무슨 실수를 한 것이 있는 걸까요?

아이가 사진 찍히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만큼 아이의 인지와 정서가 성장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어릴 때는 사진 찍히는 것에 대한 인지가 분명하지 않기에 잘 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아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 사진 찍히는 것에 대한 좋고 싫음이 명확해지지요.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했다고 생각하기에 격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촬영하며 어른들이 과하게 웃거나 반응하는 경우 놀리는 것이라 여기고 더욱 강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가 사진을 찍는 목적과 쓰임에 대해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면 좋아요. 예전 사진을 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진을 찍은 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그럼에도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이에게도 알려주세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는 사진 찍기의 올바른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함께 볼 수 있는 자료

유튜브 채널 '아름다운인터넷세상'

대상	콘텐츠명	분량	주요내용
유아	[두리가 스마트폰을 해요] 스마트폰은 오래하지 않아요 	5분 38초	주인공 두리는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사용하여 점점 몸이 구부러지고, 공처럼 둥글게되어 데굴데굴 굴러가게 되는데... 두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https://youtu.be/rA05j2aT_0w
유아	[두리가 스마트폰을 해요] 밥 먹을때 스마트폰을 하지 않아요 	4분 10초	주인공 두리는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 밥을 너무 많이 빨리 먹게 된다. 그 바람에 두리의 몸이 점점 부풀어오르면서 마침내 등실 떠오르는데... 두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https://youtu.be/HuQDe0wRcM0
초등	[아인세x도티x유규선] 건강한 디지털 시민되기 	22분 53초	'건강한 크리에이터!' 그리고 올바른 인터넷 소통은 무엇인지 도티, 유규선과 함께 이야기해요. https://youtu.be/l66jW_pIRn8
초고, 중등	[아인세x선바x유규선] 온라인 트롤 대탈출 	23분	크리에이터 선바와 유규선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노력, 사이버폭력의 이해 그리고 디지털시민되기! https://youtu.be/vy7a0oUk6Ow
초고, 중등	[아인세 미니다큐] 영원한 순간 	6분 15초	꿈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순간 속,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순간은 없었는지? 영원히 남는 본인의 디지털 기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https://youtu.be/wDIODcb8cHU
초고, 중등	[아인세 단편영화-24] 	15분 29초	인싸가 되고 싶은 태환과 민성에게 24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신중한 정보공유의 필요성, 정보의 급속한 확산과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아인세 단편영화 https://youtu.be/Jbs2EYwAIT4
학부모	[아인세 미니다큐] 아이들 무엇을 보고있나요? 	5분 17초	스마트폰과 매일을 함께하는 우리들.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것은 전쟁일까요? 아니면 함께할 수 있는 기회일까요? https://youtu.be/sVmQZeU6ouc
학부모	[아인세 미니다큐] 웹캠 두 가족채팅방 	5분 18초	가족 채팅방은 만드는데 아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려줘야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https://youtu.be/igz2vSF8q0
학부모	Love Ego 	12분 6초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정보를 추천해주는 Love ego?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것일까요? 당신은 이용해보시겠습니까? 정보편향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영상(픽션) https://youtu.be/F1W-IMhRON8

인터넷 사용 컬러 일과표

초등학생용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인터넷 사용 컬러 일과표를 만들어 보세요.

1. 한 칸당 30분이며, 컬러 테이프, 스티커, 색연필 등 색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활용 가능합니다.
2. 인터넷 사용 컬러 일과표를 작성하면, 아이가 하루 동안 인터넷을 어떠한 용도로 얼마나 사용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3. 인터넷 사용과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는 시간의 균형을 맞추거나, 전체 사용 시간을 칸의 수로 제한하는 등의 규칙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4. 아이와 함께 인터넷 사용 생활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 활용해보세요!



인터넷 O

인터넷 X



	학 습 예: 원격수업, 학습앱 온라인 독서 모임	놀 이 예: 게임, TV/동영상 시청	학 습 예: 문제집, 독서	놀 이 예: 운동, 산책 보드게임, 블록놀이	
30분					30분
1시간					1시간
1시간 30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2시간 30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시간 30분					3시간 30분
4시간					4시간

인터넷 사용 컬러 일과표

유아용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인터넷 사용 컬러 일과표를 만들어 보세요.

1. 한 칸당 30분이며, 아이가 해당 영역의 시간을 사용할 때 체크해 주세요.
시간을 잘 모르는 유아의 경우 부모가 체크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2. 컬러 테이프, 스티커, 색연필 등 색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활용 가능합니다.
3. 인터넷 사용과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는 시간의 균형을 맞추거나, 전체 사용 시간을 칸의 수로 제한하는 등의 규칙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4. 아이와 함께 인터넷 사용 생활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 활용해보세요!

<div>  인터넷 O </div>		<div> 인터넷 X  </div>	
	예: TV/동영상 시청, 게임, 앱 사용	예: 그림책 보기, 자유놀이, 바깥놀이, 몸놀이	
30분			30분
1시간			1시간
1시간 30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2시간 30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시간 30분			3시간 30분
4시간			4시간

기획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정보윤리팀 주윤경 팀장, 곽혜숙 수석연구원

제작 및 편집 그로잉맘

발행인 한상혁, 문용식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발행일 2021년 1월

이 자료는 저작권법에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하며,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홈페이지(www.아름다운인터넷세상.kr)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GROWING MOM 